빛으로 그려 한지에 올린 꼬레이스키 삶의 증언

- 정성태의 우크라이나 고려인 기록사진 -

장미진 (미술평론가, 미학박사)

1. 사진기의 눈과 작가정신

사진은 영상을 재현하는 기계적 복제술이다. 그러나 사진기는 붓을 대신하는 것뿐 아니라 작가의 눈과 손까지도 대신하면서 작가의 선택과 의도를 대변하며, 나아가 작가의 심상(心想)이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을 통해 방사되도록 하는 제 4 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미술사가 곰브리치는 "작가는 보는 것을 그린다기보다 그리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사진작가에게도 해당되는 언급이다. 작가의 인식과 예술 의지에 따라 사진기의 눈 또한 무상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순간의 멈춤 속에 담아낸다. 이 모두는 작가가 선택한 리얼리티의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다. 영상미학의 층위는 바로 작가의 정신과 제작과정 및 영상으로 재현된 대상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진기는 단지 시간적 기록의 도구 이상의 존재를 넘어서는 특이한 기술적 장치라고 할 만하다. 그만큼 사진 영상은 다양한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미래적 현상에 대한 표현뿐 아니라 심리적 분석까지도 가능케 하는 매우 예리한 표현 매체이다.

다큐멘터리 작가로 지명도가 높은 정성태는 성균관대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2003 년), 경일대 사진영상학과에서 다시 석·박사과정(2017)을 수학했다. 현재까지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10 여 회의 개인전 및 강연회를 수행해온 그는 2013 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폐허와 그곳에 정착한 원주민인 사모셜르(Samosely)들의 삶을 기록한 〈체르노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 중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만났고, 이어 그들의 삶을 엿보고 기록하는 〈꼬레이스키: 이주와 정주의 삶〉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사진의 역사에서 현대 사진예술의 양식은 서정주의나 유미주의적 경향으로 사진의 회화성을 강조해온 살롱이즘, 리얼리즘 및 기록 사진, '메이킹-포토'를 아우르는 조형주의, 제록스 기계를 병행하는 등의 실험사진, 기억과 우연의 오버랩이라든가 중첩과 반복 도형 등의 형식을 취하는 서구 유학파 양식, 사진과 더불어 퍼포먼스와 설치를 아우르는 양식 등, 다양한 경향들이 공존해왔다. 이 중 정성태는 다큐멘터리 기록사진을 선호하는 가운데, 현대사진의 여러 가능성을 접목하여 그만의 개성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2. 꼬레이스키, 삶의 초상(肖像)과 증언

현재까지 작가는 우크라이나를 열 번 이상 왕래하면서 '이주와 정주의 삶'(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이라는 키워드로 고려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상황을 재조명해왔다. 그는 고려사람 개인뿐 아니라 여러 가족들의 사진으로 의미 있는 수 차례의 개인전을 열어왔으며, 이런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세르벤코 아트센터,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 등의 후원으로 2013 년부터 진행해온 그의 작업들은 "인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모티브를 찾아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는 일련의 새로운 실험"(월간 사진 기사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소련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은 1937 년 강제추방에 의해 조국을 떠나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각자의 정주 공간에 머물고 있다. 작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꼬레이스키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그들의 생활상이 투영된 정주공간을 사진 속에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통해 포착한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말한다: "바로 이 땅, 우크라이나의 외딴곳에서 그분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을 피부로 느꼈고, 그분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민족'이라는 '같은 피'의 뜨거움이라고 할까...". 2018 년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6 주년, 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지 어언 81 년이 된다. 그는 2016 년과 2017 년 사이,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고려사람 48 가족을 담았고 그중 27 가족을 선정하여 집중 기록하였는데, 그중 개인 기록된 사람 중에는 그 사이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하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사진기의 예술 기능은 이 같은 진실의 기록성에서 여타의 예술장르를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곡과 희망 등, 가감 없이 모든 이력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고려 사람들의 얼굴과 집안 환경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사진들은 특히 한지 위에 대형으로 인화되고 프로젝션 되거나 설치됨으로써 한민족의 굴곡진 삶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초대 이주민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도 많지만, 남은 2 대, 3 대의 가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색이 다른 혼혈 가족의 애환과 더불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면면히 대를 이어 살아낸 고려 사람들의 끈기와 자부심이 느껴진다. 작가 입장에서는 실내공간의 채광방향에 순응하여 촬영공간을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광의 변화무쌍한 리듬과 느낌을 인물과 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도록 탐색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사진마다 인물들의 표정에 포커스가 맞추어 있으면서도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살림도구들이라든가 테이블 위나 벽면의 오래된 사진들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붙여놓은 한국의 춤사위 이미지 등, 고단했지만 삶의 애착이 묻어나는 공간을 의미 있게 기록하여 보여준다. 작가에 의하면, 면담한 고려인들마다 장래 희망이 아버지, 어머니의 땅, 한국을 가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가 중년의 고려인 부부를 촬영한 바 있는데, "기다림에 지친듯, 표정없는 얼굴로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먼 곳을 바라보던 아주머니

모습에서 덧없음, 그리움, 회귀... 같은 감정을 느끼며 미묘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도 한다. 그는 두 달 후, 그 아주머니의 운명소식을 들었고, "더 늦기 전에 고려인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사진 작업은 인물들의 표면적 기록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담아두는 영상작업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에는 사실과 진실의 왜곡 없는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더하여 미묘한 메타포가 느껴진다. 이는 바로 작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담아낸 것을 사진으로 조명하고 전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특별히 여러 형태로 공정을 거친 한국 전통한지 위에 그들의 삶의 표정과 증언을 담아내어 보여주는 점도 그의 예술 의도가 향하는 정신적 필연성의 결과라고 할 만하다. 또한 한지 위 인화는 일종의 메타포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지의 질감은 바로 고려인들 삶의 질감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고려인들의 초상과 오래된 사물들의 증언은 그 깊이를 더해간다.

3. 시공간 해석: 프레임 안의 영상과 그 너머의 영상

작가가 애용하는 사진기는 중형 포맷의 핫셀블러드(H5D)로서 디지털 백과 필름 백을 함께 사용한다. 사진의 예술성을 대변하는 작가들의 시공간 해석에서 프레임의 직관적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데, 이 작가의 사진 영상은 일정한 프레임을 넘어 언외지언(言外之言), 즉 '말 너머의 말'의 경지를 열어두고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의 작업은 사진기의 앵글을 조작하여 획득하는 영상의 시공간감도 중요하지만, 전주 한지를 인화할 수 있게 다듬질하고 그 위에 염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약품을 처리한 후, 모니터와 프린트의 칼러 발란스를 맞추어 여러 번의 테스트 프린트를 통해 최종 프린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말하자면, 피사체와의 공감과 선택을 통해 영상을 포착하는 데서 나아가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즉 염료승화 방식의 잉크젯 프린트로서 색의 보존성을 높이고 발색의 디테일을 끌어올린 사진 프린트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인화지의 선택을 다양화하고 대형 인화 작업이 용이한 잇점을 살려 작업한다. 한지의 특성상 보풀이 있고 표면에 질감이 있어 인화도 어렵지만 보존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 만큼 세 차례에 걸쳐 보존 물질을 스프레이하여 최종 완성도를 높인다. 이 같은 기술적 공정은 작가의 예술 의지를 반영하는데, 한지 위 인화와 함께 한 지 위 프로젝션을 통해 일정한 프레임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심리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또한 사진을 세로로 자르고 겹치고 천정에 매달기도 함으로써, 세월이 겹겹이 쌓이고 움직이며 흔적 지워진 변화, 즉 중첩으로 인한 반복과 그림자, 그리고 흔들림의 동세(動勢)에서 오는 간극과 착시 등을 관람자가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촬영한 사진을 특유의 방법으로 인화하여 다시 조각하고 설치하는 그의 작업방식은 사진예술의 양식적

해체에서 뿐 아니라 매체와 설치방식의 확장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고려인들의 고향땅인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방패연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한지 양 끝단에 대나무살을 대고 풀칠하여 명주실로 천정에 매단 작품은 바람길을 따라서라도 늘 고향땅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고려인들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처럼 기록사진의 일반적 양식을 넘어 한국땅에서 만들어진 한지 위 인화와 프로젝션 및 사진의 조각 설치 등을 통해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이국땅에서 만난 고려인들의 애환과 희망을 좀 더 울림이 깊게 기록하고 전달하고자 고심한다. 프레임 안의 영상은 인물들의 표정이나 의습과 방 안의 환경 등과의 교감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만, 나아가 작가가 의도한 사진의 질감이나 디자인된 시공간적 구도와 장치 등에 의해 또 다른 메타포를 발생시키면서 그 의미가 확장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작가는 해외 순회 전시에 최적화하여 작품의 이동과 보관에 적합한 우리 미술의 두루마리 형태도 계승하고자 한다고 피력한다. 그는 이 번 전시를 앞두고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열리는 <한 • 우크라이나 현대미술전>의 전시 큐레이터와 체르노빌 사모셜르(Samosely: self-settlers) 촬영을 위해 출국해 있다. 큐레이팅까지 공부한 그의 행보에 따라 우리 현대미술계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위상과 예술적 가능성은 매우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